

■ 미용 의학 크리닉 칼럼

생얼도 빛나게 해준다는 스킨부스터

며칠 전 우연히 찜질방에서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유독 얼굴이 반짝이는 친구에게 "생얼인데도 얼굴에 빛이 나네. 도대체 뭐한거야?" 물어보니 물광부스터를 했다고 한다. "물광? 부스터?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본다. "나도 뭘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보니까 촉촉하고 피부가 안 당겨서 좋아. 게다가 사람들이 얼굴이 반짝인다고 하니 기분도 더 좋아지더라~ ㅎㅎ" 한참동안 수다 삼매경에 빠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킨부스터 종류와 성분과 효과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였다.

■ 물광주사(HA 스킨 부스터)

물광주사의 핵심성분은 히알루론산(Hyaluronic Acid)으로 피부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여 수분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어 피부가 촉촉하고 빛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물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은 피부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피부의 구성 성분이다. 자기 무게보다 1,000배 이상의 수분을 흡수시키고 저장할 수 있는 힘이 강한 천연 보습제이다. 이 물질을 인체성분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액체로 만들어서 직접 진피층에 넣어주는 시술이 "물광스킨부스터"이다. 진피층의 수분 보유력을 부스팅 해주기 때문에 수분 손실을 막아 촉촉하고 빛나는 피부를 얻을 수 있다. 강력한 보습 효과로 피부결, 피부톤, 주름, 탄력 개선 등 복합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매일 세안 후 기초화장품을 바르듯이 1~2개월에 1회씩 물광부스터 시술을 받으면 주름을 예방할 수 있으며 피부건조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시술 후 거부반응이 전혀 없고 부작용이 없다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스킨 타입이나 스킨 컨디션 상태에 상관없이 모든 피부에 필요한 시술이다.

■ 아기주사(PDRN 스킨 부스터)

연어의 정자에서 추출한 DNA물질인 PDRN(Polydeoxyribonucleotide)으로 만들어진 '연어주사'는 아기같은 동안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해서 '아기주사'라고도 부른다. PDRN은 세포 재생과 성장을 촉

진하는 기능을 한다. DNA단계에서 세포 재생이 촉진되어 줄기세포의 일종인 섬유아세포에 작용한다. 이때 피부의 90%를 차지하는 진피조직에 있는 콜라겐을 합성시켜주어 손상된 피부를 근본적으로 재생시켜준다. 탁월한 재생 효과 때문에 여드름 흉터 개선, 탄살 개선, 잔주름 개선 등에 도움이 되며 탈모치료 효과도 있다. 고농축 재생 성분이기 때문에 진행형 여드름이 있는 피부는 피지선에 더 자극을 주어 여드름이 더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콜라겐 촉진과 세포 재생에 탁월하여 꾸준히 시술 받으면 가성비 높은 노화방지(Anti-Aging) 효과를 볼 수 있다.

■ 리주란(PN 스킨 부스터)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PN(Polynucleotide)으로 만들어진 리주란은 PDRN(연어정자추출)과는 비슷한 성분이다. 분자량과 농도, DNA크기가 PDRN(아기주사)보다는 높은 고농축 연어주사이다. PDRN보다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피부 진피에 흡수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엠보싱이 더 오래 남는다 것과 시술 시 통증이 있고 저렴한 가격은 아니다. 그러나 진피의 밀도를 증가시켜주어 얇고 늘어진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재생 효과가 탁월하다. 특히 예민한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고 약화된 피부를 정상화시키는 탁월한 재생 효과가 있다. 민감성 피부에게 권장하는 스킨 부스터이다.

피부속부터 영양을 부스팅 시켜주는 스킨부스터(Skin+Booster)를 정기적으로 꾸준히 시술 관리 받으면 피부 노화방지와 함께 언제나 빛나는 피부를 갖게 될 것이다. 화장을 지우고 생얼로 있어도 반짝이는 피부를 갖고 싶은 것은 모든 여성들의 로망! 이제 나도 이제 피부미인!

Dr. K Medi Spa
한의학박사 김은희 원장
PhD, DAc, MS, LAc.
(714) 204-6652



■ 교육

예일대, SAT·ACT 성적 제출 다시 의무화



▲ 예일대 스텔링 기념 도서관, 사진=shutterstock

미국 명문 사립대학들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표준화된 시험성적 제출을 잇따라 다시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예일대는 전날 내년 신입생 지원서에 대학입학자격시험(SAT)과 대학입학학력고사(ACT) 등과 같은 표준화된 시험 성적의 제출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예일대는 SAT와 ACT 외에 AP와 IB(국제 바칼로레아) 성적도 지원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예일대는 "2025년 가을학기 이후 입학 지원자는 표준화된 시험성적이 필수이며 SAT, ACT, AP, IB 등 4개 선택지 중 어떤 점수를 제출할지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아이비리그로 불리는 명문 사립대 중 표준화된 시험 성적 제출을 다시 요구하기로 한 대학은 다트머스대에 이어 예일대가 두 번째다.

예일대는 "표준화된 시험 점수를 총체적인 평가과정의 일부로 신중히 사용할 경우 신입생의 다양성을 늘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며 "다만, SAT와 ACT에 집중하는 방식은 촉망받는 학생이 예일대를 선택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준화된 시험 점수 없이 지원할 수 있게 하면 저소득층, 이민학생, 비도시지역 학생 등에게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미 주요 대학은 2020년 팬데믹 사태 이후 방역상의 이유로 SAT와 ACT 점수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입학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특히 명문 사립대들이 SAT 등과 같은 시험점수 대신 자기소개서와 고등학교 성적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다른 대학의 입학 사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표준화 시험 성적 제출을 의무화한 다트머스대는 SAT와 ACT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은 임시전형이 통념과 달리 저소득층 수험생의 입학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재도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트머스대와 예일대의 신입생 선발 정책 변경은 향후 다른 미국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조지타운대 등 다른 주요 명문 사립대들도 표준화된 시험 점수 제출을 다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hutterstock

테메쿨라 한인 치과 오픈!

TOWN CENTER DENTAL

· 타운 센터 덴탈 ·

★ 무료상담!

가족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진료

임플란트 / 신경치료 / 크라운 / 보철치료 / 틀니

ALL PPO, LIBERTY, ALL MEDI-CAL, DENTI-CAL, IEHP, MOLINA

임플란트

\$1,200

부터

T.951.693.9595

29700 Rancho California Rd. STE G5, Temecula, CA 92591

Mon - Wed, Fri. 9:00AM - 6:00PM